



소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

2019. 12. 29.(가해) 제2194호



가실성당 사진 / 양병주 분도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마태 2,13)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모든 가정의 모범이신 나자렛 성가정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세 분이 이루는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 부르며 모든 가정의 모범으로 삼아 본받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시련이 많았던 가정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었습니다. 가장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의 목수는 대개 천민들의 직업으로,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가정'은 힘겨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가정'은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발부터 뼈저터거렸고, 아들 예수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되고 마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무슨 이상적인 가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정이 특별한 것은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고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가정'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모든 어려움을 하느님 안에서 해결하는 가정, 가족이 서로 아껴주면서 위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성가정이고, 이런 가정을 '성가정'이 보여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거실이나 방의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모셔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십자가와는 영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서 이겨낼 생각은 없고, 다들 남 탓으로 돌려 대다 보니 가족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네 가정이 아닙니까? 이럴수록 온 가족이 기도하며 서로 믿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헤쳐나갈 때 진정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탓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어찌 됐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새해엔 더 열심히 잘해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하느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

이성진 요아킴 신부 | 성동본당 주임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요약 (2020년 1월 1일)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회심

평화는 소중한 선(善)입니다. 평화는 우리 희망의 대상이고 온 인류 가족의 열망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덕목입니다. 국내외 분쟁의 참상은 흔히 무자비한 폭력으로 증폭되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전쟁은 형제애를 파괴하는 일종의 형제 살해입니다.

모든 위협적인 상황은 불신을 키우고, 자기만의 안전한 곳을 찾아 움츠러들도록 부추깁니다. 이 세상은 핵의 구렁텅이로 이어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무관심의 장벽에 갇혀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께 공동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 공동의 기원에 기초하고 대화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참형제애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그리고 개인적 정치적 의지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확신에 찬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곧, 배척이나 조작 없이 대화에 열려 있는 평화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상호 경청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 수 있고, 심지어 원수에게서 형제자매의 얼굴을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여정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복수심보다 훨씬 강한 공동의 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1-22)

우리는 타인을 향한 적개심과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 공동선, 자연에 대한 고려 없이 목전의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천연자원을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천연자원과 다양한 형태의 생명과 지구는 우리가 “일구고 돌보도록”(창세 2,15)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를 일구고 돌보아야 합니다.

화해의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는 평화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이들도 우리만큼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형제적 만남의 문화는 우리의 좁은 지평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보편적 형제애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여정에서 화해의 성사로 힘을 얻습니다. 화해의 성사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든 피조물을 향해서든 모든 폭력 행위를 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자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끄시어 정의와 평화의 장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평화의 하느님,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걸림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0년 1월 1일 제53회 세계 평화의 날을 즈음해서 발표하신 담화문 “희망의 여정인 평화”(Peace as a Journey of Hope: Dialogue, Reconciliation and Ecological conversation)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믿을만한 증인들, 대화에 열려 있어서 누구도 제외시키거나 조작하기를 거부하는 평화의 일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데올로기들과 다양한 의견들 너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 나누는 신뢰할만한 대화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상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한 소식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언론들은 교황께서 제시하는 방향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독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가 잦고 그 안에 일정한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대표적인 오보들만 보더라도 정도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11월 16일 〇〇일보는 김일성 피격설을 1면에 실었고 이를 후에는 12개 면 중에서 7개 면을 김일성 사망 기사로 채웠습니다만, 바로 그날 UPI 통신이 김일성의 건재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세계적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옛 애인이 총살되었다는 자극적인 기사도 있었지만

(2013년 8월 29일 〇〇일보), 이후로 당사자 현송월이 멀쩡히 공연을 다니고 국가 행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해당 신문은 북한 중요 인물을 여럿 죽였다가 부활시키는 오보를 수없이 내기도 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금강산 댐을 쌓는다고 국민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성금과 혈세를 헛되이 날리게 했던 또 다른 〇〇일보의 기사도 대표적인 오보 사례였습니다.

언론 관계자들은 이렇듯 북한 관련 오보가 등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북한 관련기사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아무도 가보거나 전화 한 통 할 수 없으니까요), 둘째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삿거리를 꾸며내도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일이 없다는 점이 오보를 양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측과 음모론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이 북한 관련 보도로 둔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한 경멸과 증오와 편견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 쪽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말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분노와 경멸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태도가 몇몇 언론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부터 조작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자유롭게 열린 대화를 나누려 한다면 평화의 길은 그만큼 넓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김영민**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주님!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어
 물결처럼 요동치는 저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가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써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잠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서두르지 않기 위하여 짧은 순간이나마
 휴식을 취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하여
 다정했던 옛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집을 잃고 헤매는 강아지를 돌봐 주기 위하여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거미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랑스런 어린아이를 보며 마음껏 웃기 위하여
 혹은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기 위하여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인생’이라고 불리는 달리기 시합에서는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소서.

높은 탑과 같이 치솟은 큰 떡갈나무를 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잘 자라났기 때문에
 이처럼 크고 튼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 오린 엘 크레인 -

지혜의 숲

인류

스승이 세상의 파멸에 대해 강연을 하리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광고가 되었고,
 그래서 수도원 마당에는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강연은 일본도 채 안 걸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원칙 없는 정책, 연민 없는 발전, 노동 없는 부(富),
 침묵 없는 매움, 대담성 없는 종교,
 그리고 깨침 없는 예배.”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 음	마태 2,13-15,19-23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12,24(화) | 서품 대상자 선발예식
계산성당 성탄 밤미사

12,25(수) | 이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미사

12,27(금) | 2020년 사제, 부제 서품식

12,24(화) | 서품 대상자 선발예식
장천성당 성탄 밤미사

12,25(수) | 용강성당 성탄 미사

12,27(금) | 2020년 사제, 부제 서품식

아름다운 기증, 한티교우촌의 역사가 됩니다!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셨던

생활 도구류와 농기구, 한티 초가 사진, 글, 서적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멍석, 망태기, 소쿠리, 지게, 장군, 소죽통, 작두, 쟁기, 키, 소반, 조리, 절구통 등)

150년 전 신앙 선조들이 사셨던 한티 교우촌 복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 한티 오실 때 도시철도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38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빛」 잡지 표지 '김옥순 수녀 작품사진' 2020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 판매

가 격 : 8,000원

문 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9

판 매 처 : 교구 문화홍보국, 성바오로 서원,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바오로딸 서원(범어), 바티카노, 동천성당 성물방,
삼덕성당 임마꼴라따 성물방

※ 택배비는 별도이나 5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박성규 엘리지오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5(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서울대교구 성마리아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1,5(일) 14:00
 장소: 전화 상담 후
 대상: 재속회에 관심있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제3회와 다름)
 문의: (010)9437-5903 / (010)6688-3863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4(토) 10:00
 내용: 찬양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셔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3박 4일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일시: 1,13~16 / 2,10~13 / 3,16~19
 장소: 성모솔숲마을
 준비물: 신약 성경, 세면 도구
 신청: (054)373-3955

4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일시: 3,14(토)~15(일), 의왕시 아론의집
 주제: 돌을 치워라(요한 11,39)
 지도: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주최: 미국중남부성령봉사회, 하찬사
 문의: (010)2855-9082 / (010)3319-9082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 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태극권, 제대꽃꽂이,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레벨별·왕초보·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일시: 1,31 매주 금 10:00~12:3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과목: 바오로서간 / 무료
 문의: 양은철 신부, (010)9333-6260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 신·구약 (수) 10:00, 19:30
 심화: 성문서 (월) 10:00, 19:30
 (일반 과정 이수자)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9:00 / 목 14:00
 대경CEO합창단: 화 19:30~21:0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660-5556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26(목)~31(화)
 모집: 간호학과 10명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문의: (061)280-5108, 5150

가톨릭상지대 2020학년도 정시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30(월)~1,13(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3
<http://ipsi.csj.ac.kr>

노틀담 첫영성체 교재 '하나되어요' 연수

어린이 교재: 1,5(일) 9:00~16:00
 부모가족 교재: 1,6(월) 9: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제1강의실
 문의: 노틀담수녀회, (010)2123-6319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 교사 연수

일시: 1,12(일) 13: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문의: 생활성서사, (010)3193-3348
<http://www.biblelife.co.kr>

2020년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일시: 7,21~8,13 (일정 홈페이지 참조)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접수: 1,15(수) 10:00 / 비용: 12만 9천원
 문의: (042)584-0654
<https://www.sycenter.net>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효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친철상담
 대표 송 임 옥(율리아)
 053)943-5190
 010-7432-5958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성모님 사랑안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60세 이상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하신 분
 ☎ 054)434-2898

참사랑실버요양원
 참사랑인지마을
 주님 안에서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 인지마음(치매전문) 오픈 (대표이사 전제일)오픈
 ● 호스피스실 운영 (원장 최용배)매디트
 ● 장기요양인정등급 1~5(시설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모십니다.
 대구 서구 가톨릭로21길 3 | 상담전화 053)563-0657

풀무원녹즙 Pulmuone
 매일 아침 건강한 습관!
 교우 정기 음용 신청 시 사은품 증정
 (2만원 상당 유산균 60포)
성명균 (요섭)
 053)247-9396 / 010-2822-9396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독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썩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척,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훈(소피아), 홍정훈(대전간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대형약국
 성서동산병원 처방전문
 기다리지 않는 약국
 신속, 정확한 조제
T.053)582-5698 (건물 안 위치)
 대표약사 김형미(율리아나), 박수현(젤마)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보록(아킬레오) 신부
1922년 1월 2일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15(수)~17(금)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고3·대학·일반: 1.20(월)~22(수)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20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 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1.5(일)

교육 | 모집

1월 가나 강좌

일시: 1.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테라사관 3층 강당

참가비: 1인 2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사무실 / 마감: 1.3(금)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9차 약혼자주말

일시: 3.13(금)~15(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2200-4417

대구가톨릭대 2020 전기2차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24(화)~1.6(월)

모집: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2020년 1학기 신학성경 수강생 모집

성사론, 신론, 윤리신학, 성경입문,

공관사도, 모세오경, 그리스어,

바오로서간, 가톨릭서간 등

개강: 3.2(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2020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월)

구약반: (화) 10:00, (화) 20:00

신약반: (수) 10:00, (수) 20:00

심화반: (목) 10:00, (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6520-4627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2.24~1.6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채용 | 안내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1.7(화)~9(목)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문의: 660-5164 / kkoya97@cu.ac.kr

<http://www.dgsunmok.or.kr>

삼덕유치원 담임교사 채용

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경력자,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smruth44@hanmail.net

문의: (010)3277-8344

성심유치원(구미 신평성당) 정교사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10)7116-6015

비안네유치원 담임교사 채용

대상: 2급 정교사 자격증, 경력자,
몬테소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794-5959

계산성당 주일미사 시간 변경 안내

시행: 1.1(수)부터

토요일: 16:00 / 19:30

일요일: 6:30 / 8:00 / 9:30 / 11:00

17:00 / 18:30 / 20:00 / 21:30

백합식품 메주 판매

수녀들이 직접 만든 순수 우리 것
국산콩 100% 메주를 판매합니다.

문의: 자인본사, 857-2037

대구판매소, 257-1771

서울판매소, (02)2202-8392

초음파 백내장, 노인교정 수술

이종화 안과

원장 전문의 이종화 (루 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반야월 저탄입구 안심1동 새마을금고 옆

☎ 053)964-2445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깎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남창이명은

밝은귀청각재활센터 & 보청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과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영대 + 영남

결혼 ♥ 정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대표 이정희(안젤라)

T. 817-9990 M. 010-9522-2787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앞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덕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문시장 맞은편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